



FOCUS NEWS

## 서강경제 6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서강경제 60주년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2020년 11월 4일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경제학 부는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라는 주

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주관, 서강경제포럼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책금융 체계 개편과 새로운 글로벌밸류 체인의 도입, 그리고 재정문제의 부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활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영훈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남주하 교수의 ‘정책금융혁신과 체계개편방향’, 허정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新 GVC재편과 한국경제의 선택’, 김홍균 교수의 ‘우리나라 재정지속 가능성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전성훈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경제대학원, ‘2020 서강 경제 대상 시상식 및 서강경제 명예의 전당 제막식’ 개최



〈서강 경제 대상 시상식 및 서강경제 명예의 전당 제막식〉

‘2020 서강 경제 대상 시상식 및 서강 경제 명예의 전당 제막식’이 지난 11월 13일 (금) 오후 6시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경제대학원 설립허가 30년을 기념하여 기획되었던 본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본교 경제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조태현)는 ‘2020 서강 경제 대상’ 수상자로 학술·교수 부문에 송의영 경제학부 교수를, 사

회·동문 부문에 김해경 KB금융그룹 KB신용정보 대표를 선정했다. 서강 경제 대상은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교수와 국가 경제에 기여한 사회 경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 10회를 맞았다.

송의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제성장과 국제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쌓고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해경 대표는 1978년 국민은행에 입행하여 KB금융그룹 최초로 여성 CEO에 오른 입지전적 여성 금융인으로서, 2001년 본교 경제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KB국민은행 개인 영업지역 본부장과 북부지역본부장을 거쳐 2017년 KB 신용정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서강 경제 대상 시상식에 이어 ‘서강 경제 명예의 전당’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명예의 전당은 본교 경제대학원에 많은 기여

를 해온 동문의 성과를 널리 알려 서강 경제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1기 이주태, 31기 성대영, 37기 구자관' 동문이 선정되었다.

이주태 동문은 미도교역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은탑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이탈리아 국가 훈장과 베트남 국가공로장을 받았다. 한국수입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경희대 무역학부에서 10년간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성대영 동문은 현재 위더스제약 대표이사, 석경의료재단 이사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 이사, 한빛약품 대표, 한·몽 정상학회 부회장, 남서울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구자관 동문은 현재 삼구아이앤씨 대표이사이자 도산아카데미 이사장으로서 모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HR서비스협회 회장, 한국경비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창조경영인상,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정재식 교수·박석진 대학원생(박사과정),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정재식 교수〉 〈박석진 박사과정생〉

정재식 교수와 박석진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정재식)이 지난 6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0년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정재식 교수

와 박석진 박사과정생은 '고빈도 자료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형의 예측력 비교 분석: KOSPI 200선물시장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금융 자료로부터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론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금융학회는 매년 금융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해당 논문은 '파생상품 위험관리' 부문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 윤진영 대학원생(박사과정),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수상



〈허정 교수〉 〈윤진영 박사과정생〉

경제학과 윤진영 박사과정생(지도교수: 허정)이 지난 8월 1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진행된 한국경제학회 주관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수

상하였다. 윤진영 박사과정생은 'Multinational Factoryless Goods Products and Expansion of Wholesales & Retail Industry in Korea'라는 논문을 통해 글로벌밸류 체인을 극대화한 다국적 기업인 Factoryless 기업이 기존의 국내 도·소매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본 논문은 공동학술대회에 제출된 국내 대학원생들의 논문들 가운데 6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 김신정 대학원생(석사과정), Fulbright 대학원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



〈김신정 석사과정생〉

경제학과 김신정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최인)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장학금 중 하나인 Fulbright 장학금의 수혜대상자에 선정되었다. 김신정 학생이 받기로 예정된 대학원 과정 장학금은 미국 대학에서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 연구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에게

수여된다. 해당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중국적자, 혹은 미국영주권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장학금은 1, 2년차의 학비를 최대 연 \$40,000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0,000 상당의 미국무성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왕복항공권 등이 수혜내용에 포함된다.

## 2020년도 공인회계사, 경제학 전공자 9명 합격

2020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본교 경제학 전공자(1 전공) 9명이 최종합격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세원 (경제 14), 강원재(경제 13), 김지원(경제 14), 박해근(경제 13), 서승진(경제 14), 송희중(경제 10), 유동진(경제 10), 이상원(경제 13), 조규창(경제 14)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총 3,885명이 응시해 1,110명이 최종합격하였으며, 본교는 이 가운데 5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행정고시(5급 공채) 진행 일정이 연기되어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 윤여훈(경제 14) · 전병현(경제 15) 학생, 한국투자증권 주관 '제3회 리서치 챌린지 대회' 대상 수상



〈윤여훈 학생〉

〈전병현 학생〉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윤여훈(경제 14), 전병현(경제 15) 학생이 지난 7월 9일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된 '제3회 리서치 챌린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두 학생은 '드라마는 위기가 지나면 절정'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내

대표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리포트는 우호적인 업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지 않던 상황을 '위기'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곧 '절정'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리서치 챌린지 대회는 서류전형과 시니어 애널리스트의 직접 평가를 통해 12개 리포트를 1차 선발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단체 5팀(10명)과 개인 3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김영철 교수, 평산 연구우수교수 선정



〈김영철 교수〉

김영철 교수가 2020년 평산 연구우수교수로 선정되었다. 평산 연구우수교수상은 평산 신동수 회장이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매해 1명의 연구업적 우수교수를 펠로우

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펠로우에게는 매년 1,000만원씩 2년간 연구 장려금이 지급된다. 김영철 교수는 2000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Brow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상명대학교를 거쳐 2017년 9월부터 본교에 재직 중에 있다. 김영철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응용미시이론, 공공경제학, 불평등이론이다.

## 김윤정 교수, International Macro/Finance and Sovereign Debt Workshop in East Asia 개최



International Macro/Finance and Sovereign Debt Workshop in East Asia is a virtual workshop for a group of Asian scholars both based in the U.S. and Asia to discuss cutting-edge research on the topics of international macro/finance and sovereign debt.

The first workshop, hosted by Sogang University, Korea, and supported by University of Surrey, U.K., will be on November 5-6 (Asian time).

김윤정 교수는 International Macro/Finance and Sovereign Debt Workshop in East Asia를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11월 5-6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국제금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50명 가량 참석하여 국제금융과 국가부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본 워크숍은 동아시아의 국제금융분야 연구 학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으로 6개월에 한번씩 개최될 예정이며 첫번째 워크숍은 서강대에서 조직하였다.

## 서강경제 가족을 찾아서: 최영권(83학번) 우리자산운용 대표



〈 최영권(83학번) 우리자산운용 대표 〉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강경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0여 년간 자산운용 전문가로 활동해 오며 여러 자산운용사를 거쳐 현재는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위원회 위원과 증권거래소 책임투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강대 경영대학원(53기), 최고경영자과정(STEP 44기), 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서강대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직하고 계신 우리자산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자산운용은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채권형 공모펀드 시장 점유율 국내 1위로 우리나라 최고의 채권운용역량을 보유한 자산운용사입니다. 앞으로 주식, 글로벌 운용을 더욱 확대하여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종합자산운용사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자산운용은 윤리적 투자원칙, 책임투자원칙, 엄격한 투자원칙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으며,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30여 년간 주식운용 분야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대체투자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시며, 현재는 국내 최고 자산운용 전문가로 평가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한 우물만 파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적인 성격과 소중한 조언을 아낌없이 주셨던 멘토분들이 계셨습니다. 서강경제 가족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조언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국내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책임투자 리서치팀을 조직하시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투자를 강조하시며, 금융회사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금융투자업계가 책임투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2010년 BP(British Petroleum)의 기름유출 사고와 2015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기업의 ESG 이슈가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 확대입니다. ESG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간 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고자 관련 규제를 마련하면서 책임투자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SG에 대한 고객 수요의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부정부패, 무형자산 가치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산운용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은 중소·벤처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자산

운용업계는 투자 자산 대부분이 안전자산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IPO, M&A, 판매 채널 혁신 등을 통한 자산운용사의 선제적인 자강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투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앞으로 자산운용업계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바꾸어 대표님의 학창 시절에 관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경제학과 과대표와 배구부 조교를 맡으실 정도로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의 순간은 무엇이고, 반대로 가장 후회되는 학창 시절의 순간은 무엇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가졌던 꿈은 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교지편집실에서 근무하며, 강원도에 있는 '안인'이라는 작은 마을을 기획 취재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서강대 배구부 조교로 활동하며 선수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조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서강대 후문 합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냈던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반면,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곤 합니다. 현재는 명예교수이신 이도성 교수님의 계량경제학 수업을 포함하여 수학, 통계학,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필수 역량이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파이썬(Python)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가장 어려웠던 일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객들의 자산을 잃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1999년 대우채 사태가 발생하고, 2000년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1년 9개월 동안 주가지수가 급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객들의 자산을 잃었다는 사실에 칼에 베인 것과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집중력을 갖고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5개월 만에 고객들의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금융인이 되기 위한 덕목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서강경제를 이끌어 나갈 경제학부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삶에 있어서 Arete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Arete란, 탁월성 혹은 도덕적 미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최대한도의 능력으로 최선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수한 위치에 다다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금융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덕목으로는 바로 디지털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훌륭한 금융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학적인 지식과 코딩 능력은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리서치 역량과 외국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다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이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신임교원 인터뷰 1 : 이성원 교수



〈이성원 교수〉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와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로 부임하게 된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8년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계량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연구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그 후 서강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강대학교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고, 그저 매우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 서강대 그리고 서강대 학생들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하셨나요?

서강대와 서강대 학생들에 대한 첫 인상은 제가 학생이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한 이미지' 이것이 바로 서강대와 서강대 학생들에 대한 저의 첫 인상입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 강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학생들이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의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입니다. 계량경제학이란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경제 분석에 유용한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비모수 또는 준모수적 식별 및 추정 문제와 정책 효과 측정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응용미시경제학 분야(노동, 재정, 보건 등)에서 고려되는 정책 효과가 이질적일 때 이것을 어떻게 식별하고 추정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연구 방향은 실증 경제학 문제에 있어서 유용한 모형과 추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계량경제학은 수학적 또는 통계학적 측면이 많이 부각되었고, 이를 중점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량경제학의 흐름은 모형과 실제 데이터와의 조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실증적 문제와 동떨어진 계량경제학 모형은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

불어 구체적인 실증 경제학적 질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량경제학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연구 방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강대에 계신 교수님들 및 대학원생 분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맡으신 강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번 학기에 수리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리경제학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언어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제학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관하여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학에서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최적화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되는 수학적 이론과 배경을 소개합니다. 계량경제학은 기본 선형 모형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가정이 데이터와 적합하지 않을 때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증 경제학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요?

학창시절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경제학부로 입학하긴 했지만 1~2학년 시절에는 제 적성과 경제학 공부에 맞는 의욕도 많이 들어서 경영학, 정치외교학, 사학 등 다른 전공 수업들을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친구 및 주변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면서 소중한 조언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술도 꽤 자주 마셨던 것 같아요. 술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였는지 궁금합니다.

1997년에 IMF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경제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경제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몰랐지만 환율, 증가 등 여러 경제지표가 매일 뉴스를 도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거시 경제 지표들이 신기하게 보여 경제에 대한 관심이 처음 생겼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 진학 당

시 경제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부에서 경제학과 수학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학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진로에 대한 조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여러 부분에서 소극적인 면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이나 태도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그에 필요한 것들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직면한 어려움을 수월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육자로서의 목표 혹은 교수님만의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계량경제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아무래도 '계량경제학'이라 하면 통계나 수학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매우 건조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계량경제학에 있어서 수학과 통계학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를 활용하는 방법과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는 계량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많은 실증 사례를 제시하면서 계량경제학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강대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저는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업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매우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와 별개로 본인이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임교원 인터뷰 2 : 허준영 교수



〈 허준영 교수 〉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와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에 부교수로 부임하게

된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서강경제의 일원으로 맞이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년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Northridge,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 서강대 그리고 서강대 학생들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거의 한 달간의 서강경제 생활과 학생들과의 수업이 끝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주 제한적인 경험이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캠퍼스와 경제학부의 친절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항상 도움을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제학을 바탕으로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보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의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거시경제학, 그 가운데 거시경제정책을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요약되는 거시경제정책이 실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지요. 서강대의 훌륭한 연구 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거시경제정책 효과분석을 꾸준히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장기적인 저성장 및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그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의 연구가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맡으신 강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 학기에는 거시경제학 I 과 금융정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학 I 에서는 1학년 경제원론 수업을 통해 배운 거시경제 관련 내용을 심화하고 더욱 엄밀하게 장/단기 거시경제 모형을 설정하여 이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금융정책은 이렇게 거시경제학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의에서 교과서에 있는 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현실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학생들이 기를 수 있도록 도움 예정입니다.

###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요?

대학시절에는 경제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1~2학년 때는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은 그다지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귀감을 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경제학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생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로소 3~4학년이 되어서야 경제학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많은 재수강들로 인해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전공은 자연과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가을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가정이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경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사람들의 삶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경제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경제학자 혹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느꼈던 추상적인 문제의식을 풀어낼 수 있는 학문이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제 스스로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라는 생각을 하면 가끔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이 즐겁기 때문에 곧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일게 됩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경제학이 현재만큼의 중요도를 가지게 된 것은 그만큼 경제학이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사는지”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유할 여유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지갑을 열고 어떠한 재화를 구매할 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넓고 깊은 삶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의 목표 혹은 교수님만의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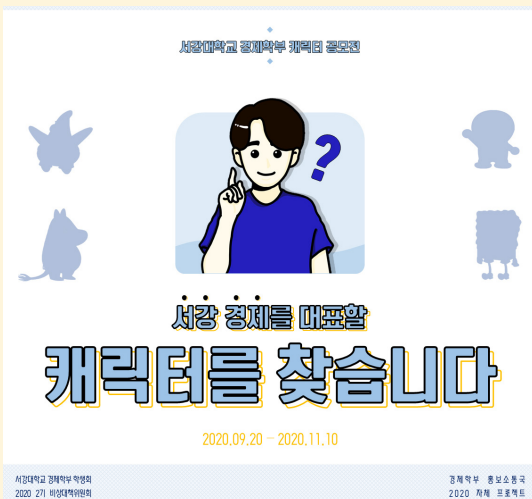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의 강의를 기승전결을 가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몰입하고, 지식의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왜 배워야 하고 이를 통해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날그날 수업을 통해 한편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지식을 통해 인간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습득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일 것입니다.

**끝으로 서강대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학업을 이어나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잘 견뎌내며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지식과 경험의 추구를 멈추지 맙시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집기사

### ● 경제학부 비상대책위원회 “경제학부 캐릭터 공모전” 개최



〈 서강경제 캐릭터 공모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인하여 경제학부 학생회 및 동아리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2020 2기 경제학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제학부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참가 신청 마감 후 공개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며, 총 4명(팀)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정된 캐릭터는 앞으로 경제학부 학생회 SNS 및 포스터와 같은 여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수동정

● 전현배 교수, 경제학과 신입 학과장 임명



〈 전현배 학과장 〉

2020년 2학기부터 전현배 교수가 경제학과 학과장에 임명되어 학과의 발전을 이끌게 되었다. 지난 1년간 학과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주신 전성훈 교수(전 학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전현배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전현배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제는 “온라인 쇼핑 확산이 지역 고용과 소매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총 연구기간은 2년이다. 신용카드 기업으로부터 얻은 빅데이터와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 규모의 확대에 따른 지역 고용 현황과 소매업 생산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 허정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허정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제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도소매 산업내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간 비교 실증연구”로 총 연구기간은 1년이다. 다국적 서비스 유통기업과 순수 국내 유통기업간의 차이를 다각도로 규명하고, 도소매 산업내에 다국적 도소매 유통기업들의 진입이 전통적인 도소매 유통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과를 살펴 볼 계획이다.

● 안태현 교수, 한국연구재단 SSK 사업 중형단계 연구단 선정

안태현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뉴노멀 시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연구단이 한국연구재단 SSK 사업 중형단계 연구단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제는 “뉴노멀 시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으로 사업기간은 3년이다. 본 연구단은 ‘뉴노멀 시대의 성장과 소득 분배’라는 연구의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인 문제인 소득불평등 심화와 성장 둔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연구년 소식

김도영 교수는 2019년 2학기부터 1년간, 전현배 교수는 2020년 1학기부터 6개월간,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년을 가진 후 이번 학기부터 학부 강의를 재개하였다. 한편 이한식, 주하연 교수는 2020년 1학기부터 연구년을, 김경환, 김영철, 남주하 교수는 2020년 2학기부터 연구학기를 가지고 있으며 2021년 3월에 복귀할 예정이며 이강오, 이영훈 교수는 2021년 1학기부터 6개월간 연구학기를 가질 예정이다.

● 신입교수 임용

경제학부는 2020년 2학기 이성원 교수와 허준영 교수를 신입교수로 임용하였다. 이성원 교수는 2009년에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8년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계량경제학 이론, 미시계량경제학, 응용계량경제학 등이다.

허준영 교수는 2003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에 Indiana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Northridge,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매진해 왔다. 허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화폐경제학, 금융경제학, 응용계량경제학, 거시경제학 등이다.



〈 이성원 교수 〉



〈 허준영 교수 〉

## 학계 동문 소식 (2020년 6월 이후)

### ○ 양충열 동문,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 이코노미스트 부임

양충열 동문은 2011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석사 학위(지도교수: 이윤수)를 취득한 뒤 2014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2020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20년부터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 이코노미스트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 화폐경제 등이다.

### ○ 조무상 동문,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 추계세제 분석관보 임용

조무상 동문은 2009년 고려대(세종캠퍼스)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2017년 2월 본교 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졸업 후 서강대 혁신과경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한국산업경제학회 이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 추계세제분석관보로 임용되었다. 지도교수는 김경환 교수이며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등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 ○ 강지수 동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용

강지수 동문은 2012년에 본교에서 경제학 전공을 이수하고,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본교에서 취득하였다. 졸업 후 서강대 혁신과경쟁연구센터 전임연구원과 서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을 거쳐 올해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다. 지도교수는 전현배 교수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조직론과 응용미시이다.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 경제학부 정기세미나

본교 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는 1학기에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되어 왔던 경제학부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주요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 [Department of Economics Seminar Schedule Summer 2020]

## 안영빈(7월 2일)

허난대학교

Misperception or asymmetric loss? Consumer's perceived and expected inflation in Japan

## 이의정(8월 20일)

London School of Economics

Marriage and Misallocation; Evidence from 70 Years of U.S. History

## ● 특별 강연(Special Lecture)

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의 김영일 교수를 초청하여 'Fertility Determination and Baby Boom'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하였다. 10월 8일, 15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 현상을 경제학 모델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특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 ● 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지 『시장경제연구』 제 49집 2호 발간

남덕우경제연구원은 정기발행 학술지인 『시장경제연구』 제 49집 2호를 2020년 6월에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지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 『시장경제연구』 제 49집 2호

1. 공적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소고: 법령 및 정부별 시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 임슬기(서강대학교), 이수형(서울대학교)
2. 거시경제적 요인의 KOSPI 주가지수 선물 변동성에 대한 영향 추정  
- 이진(이화여자대학교)
3.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 강태수(고려대학교), 김경훈(홍익대학교)
4. 기업규모에 따른 FTA 수입활용률 분석: 한·미 FTA를 중심으로  
- 조미진(명지대학교), 최보영(경북대학교)

## 경제학부 단신

### 2020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선발

가. 목적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의 교육을 통해 서강 경제 교육 수월성 제고.

나. 선정 기준

- 4학기 ~ 6학기
- CGPA 3.3 이상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의 Honors class 분반 한 과목 이상 이수자

다. 선정 결과 :

- 금학기: 재무경제학 4명, 이론경제학 1명
- 누계 인원: 이론경제학 42명, 재무경제학 65명, 총 107명 (2020년 8월말 기준)

### 2020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완수자

- 재무경제학 : 국성근(2014)
- 이론경제학 : 박준섭(2015), 조희래(2014)

### 경제학부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시상식

가. 선발기준(선발기준변경: 2020-9차 경제학부인사위원회 (2020.09.15))

- 2020-1 학기성적기준으로 15학점이상 취득자중 성적 (SGPA) 3.7 이상 학생
- 2020년 1학기에 사후적 S/U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정에서는 S/U를 선택하지 않은 학점이 15학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함.

나. 선발 인원 : 이수 학기별 등록생의 5% 내외 총 48 명

### 경제학과 동문장학생 선발

가. 장학생 선발 기준

- 단스리스트에 선정된 경제학부 재학생 중 4학기 ~ 8학기 재학생(휴학생 제외)
- 2020-1학기 성적 중 Pass로 전환한 이수과목이 있는 학생 제외

나. 선발 인원 : 각 학기 성적 상위 2명씩 총 10 명

다. 장학금 : 학업지원비 100만원씩 총 1,000만원

### Global EnH 최고위과정 제 13기 수료식

가. 개최 일자 : 2020. 5. 15(금)오후 7시

나. 장 소 : GN101호

### Global EnH 최고위과정 제 15기 입학식

가. 개최 일자 : 2020. 5. 8(금)오후 6시

나. 장 소 : GN101호

## 경제대학원 소식

### 경제대학원 제55기 학위수여식 개최

가. 졸업일: 2020년 8월

나. 학위수여자: 총 30명

(경제이론전공 2명, 공공경제전공 4명, 국제경제전공 5명, 금융경제전공 8명, 노동경제 3명, 부동산경제전공 7명, 정보기술경제전공 1명)

전공	인원
경제이론	2
공공경제	4
국제경제	5
금융경제	8
노동경제	3
부동산경제	7
정보·기술경제전공	1
합계	30

### 2020학년도 후기(60기) 신입생 등록 현황

최종등록인원 42명

### 60회 신입생 입학식&오리엔테이션

가. 일시: 2020년 8월 22일

나. 장소: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진행(ZOOM)

다. 참석대상: 경제대학원 원장, 부원장 / 2020학년도 신입생

## 2021학년도 전기 학생모집

###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일반경제학 - 공공의회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노동경제 *4학기: 부동산경제전공 *4학기: 인공지능경제전공	00명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1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 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정 포함)	비 고
원서접수	2020.11.02.(월) ~ 2020.11.11.(수)	2020.12.01.(화) ~ 2020.12.09.(수)	인터넷만으로 24시간 접수 접수사이트 : 진학사 (www.jinhak.com)
서류제출	2020.11.13(금) 17:00 까지	2020.12.11.(금) 17:00 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 출신대학졸업(예정)증명서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재직자인 경우) 제출처: 경제대학원 우편 및 방문접수
전형일시	2020.11.20(금) 18:30 부터	2020.12.18(금) 18:30 부터	* 대면면접(대기실 입실 전 자가방역 실시 예정) - 본 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3층 경제대학원 * 화상면접(코로나19 관련) - 원서접수자에 한해 이메일로 신청받을 예정
합격자발표	2020.11.27.(금) 15:00 예정	2020.12.24.(목) 15:00 예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econ.sogang.ac.kr

※ 자세한 사항은 경제대학원 홈페이지(gsecono.sogang.ac.kr)를 통하여 공지 예정이며, 입학관련 사항은 경제대학원 행정팀(02-705-8179)으로 문의.

##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 OLP 과정 소개

OLP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의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0 경제대학원 OLP 제23기 수료식 개최

지난 8월 20일 OLP 23기 수료식이 본교 남덕우경제관 1층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OLP 23기 수료 인원은 28명으로 지금까지 총 1,0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1천명이 넘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참석한 수료생들에게는 한 학기 결실을 담은 수료패가 수

여되었으며, 특히 성실한 참여가 돋보이는 원우 및 운영 상 공로가 큰 원우에 대한 특별시상도 뒤따랐다. 또한, OLP 23기 자치회(회장: 전승현)에서 본교 경제학부에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전승현 회장은 박노선 경제대학원장에게 발전기금 기증서를 전달하며, 서강 경제학과의 후학을 기르는 일에 뜻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우들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주 목요일 정규 강의 및 부부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던 한 학기를 돌아보며 수료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향후 OLC 정회원이 되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OLP Journal을 발간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총동문회 행사

취소 및 연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동문 모임은 물론 총동문회 공식 행사도 연달아 취소되고 있다. 2월 24일 진행 예정이던 총동문회 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와 총동문회가 함께 준비하여 9월 26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개교 60주년 기념식이 11월 28일 토요일로 연기되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다시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총동문회는 연중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계속 대처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김상수 동문(81 경제), 경제학부 장학금 및 연구기금

기탁



< 경제대학원 OLP 23기 수료식 >

김상수 동문이 경제학부 동문회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기탁하였다. 김상수 동문은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수벨류(주) 대표로 재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본교에 60억원 이상을 기부하여 본교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 있다. 김상수 동문이 기탁한 연구기금은 '김상수 경제학과 연구기금'으로 조성되어 경제학과의 대학원생 및 교수진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우수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 광노선 학장과 23기 자치회 전승현 회장 >

동문동정

- 김은희 (97 경제)

김은희 동문이 한화역사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 김은희 동문은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에 한화에 입사하였다. 이후 한화갤러리아 변화추진팀, 경영기획 팀장, 기획부문을 거쳐 이번에 한화그룹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하였다. 김은희 동문은 사업 혁신 및 신규사업 추진 등 기획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앞으로 신규 상업시설 개발·운영 전략 강화 및 혁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이명기(84 경제)

이명기 동문이 DB캐피탈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명기 동문은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대신증권, 삼성증권을 거쳐 2011년 DB그룹에 입사했다. DB금융투자의 기업금융본부장과 프로덕트센터장을 역임했고, 현재 DB금융투자 상무로 재직 중이다.

- 구자관(경제대학원 37기)

구자관 동문이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의 제 5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구자관 동문은 1968년 (주)삼구Inc를 설립하고 현재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도산아카데미에서는 2007년 도산인상 경영상을 수상하고 현재까지 운영이사를 맡아 지속적으로 재정후원을 해왔다.

- 이진구(경제대학원 7기)

이진구 동문이 제 35대 논산계룡교육청 교육장에 선임되었다. 이진구 동문은 1986년 교직에 입문하여 논산공업고등학교 교감, 연무대 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관을 거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동문은 교육감으로서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학부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학과와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김상수 동문은 경제학부생들에게 매학기 동문회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한유 기금'으로 1,500만원(한유 주식회사)과 '경제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500만원(법무법인 건승)이 기탁되었습니다. 그 외 기탁해 주신 서강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제학부,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20.03.01.~ 2020.08.31.)

학부	김상수, 김종호, 문용호, 이철순, 정진화
대학원	한유(주)
교수	김도영, 김종화, 박정수, 송의영, 이수형, 전현배, 허정
서강의 벗	법무법인 건승

##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